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11월 어느 따듯한 겨울의 문턱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엄마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위로하며 자존감을 세우도록 격려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엄마들을 통해 가정마다 1도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는 지난번 기도제목에 나눈대로 한국에서 수술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해서 저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집도의 선생님께서 절제한 기다란 주머니 모양의 담낭과, 딱 아내 주먹만한 크기의 시커먼 담석을 쟁반에 받쳐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런 걸 몸 안에 넣고 어떻게 견뎠을지. 수술을 기다리고, 회복하는 병동에서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돌봄과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 적잖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내가 불신자라면 이분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로 감사케 하고 감격케 하는 건, 우리 (동료 인류)를 하나로 더 단단히 엮는 장치들은, 아픔과 약함과 고난을 재료로 한다는 걸 또 배웁니다. 동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믿게됩니다.

샤워중에 또 정전이 되었습니다. 따듯한 물이 쫄쫄 나오다 찬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몸의 온도는 급하게 떨어집니다. 눈 감은 것과 뜯 것의 차이가 없는 암흑을 더듬어 대강 비누를 닦아내고, 정리하고 더듬어 밖으로 나옵니다. 한기가 올라오는 바닥을 딛고 벽을 더듬어 문고리를 찾아 돌리면 방안에 남아있는 온기에 안도합니다. 겨울이 되니 정전이 더 잣아졌습니다. 낮에도 몇 번을 두꺼비집 리셋 버튼을 누르러 뛰어갔다오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불편한 건 샤워중 정전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겨울을 6번이나 보내면서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시가스가 내년이면 들어온다는 희망 고문만 7년째, 올 햐 그런 소리도 쑥 들어갔습니다. 염치가 있지, 더이상은 말하지 않나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센터 교실에서조차 잠바를 입은채로 모자를 뒤집어쓰고 공부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매한 가지입니다.

"선생님, 뒷뜰에 양 얼굴뼈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라 이야기했습니다.

"응, 개가 물어다 놓았나봐."

"안그래도 이곳이 종교(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이들을 납치하고 장기를 파는 곳이라는 소문) 여기에 저런 뼈가 있으면 (그런 소문이 더 퍼질까봐) 걱정스러워워서요." 아이들이 염려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치우지 그랬어."

"학교 선생님들은 혼내기만 해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데 이곳은 정말 편하고 즐거워요."

며칠전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카를가치 샘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묘하게 긴장을 풀 수가 없으면서도, 아이들과의 거리는 이정도로 가까워져 고마울따름입니다.

1월 14일 벡뚜르가 두번째 1년 언어연수를 마치고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도착한 날 저녁 늦게까지 엄마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년전 가정들을 처음 방문할 때 우리 사 이에 존재했던 서먹함과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우린 마치 가족이 된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1월 23일 카느벡(목사)이 이끄는 2박 3일의 일정(리트리트 성격)에 벡뚜르가 합류했습니다. 총 7명의 키르기즈 형제들이 카라콜에서 낮에는 스키를 타고, 밤을 맞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카느벡은 복된 소식을 나누고, 아프간에서 사역했던 형제는 간증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카라콜의 까만밤에 벡뚜르가 하나님을 만나길 이곳에 남은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때 중학생이었던 마타이가 스물두살의 청년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 함께 짹지어 기도하는 시간에 돌아보니 그가 앉아있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때 내가 매달 나눠준 One Body (키르어 번역본) 성경공부 교재가 아직도 집에 있다며 소중한 추억인양 수줍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화중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여 감사하면서도, 그를 할퀴고 지나간 삶의 상처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누를란 바이케, 소눈 에제, 나의 대부 대모가 되어주실래요?” 기도 시간에 “외롭게 보여 불쌍히 보이지 않길 바란다”는 쓸쓸한 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론이지.” 집에 돌아와 대부모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이렇게 쉽게 맡을 자격은 되며, 준비는 된 것인지 스스로 물었지만, 돌아보면 나의 아빠됨도 자격이 되어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 다가오는대로 밀어내지 않고 손내밀어주는 어른이 되어보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우리 센터에서는...

10학년 여자 아이들은 소눈 에제로부터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려 교실을 꾸몄습니다. 아이들에게 귀걸이 만드는 교실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린 센터에서 잠시 일했었던 보현이네도 오랜만에 연락되어 방문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새해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지 부탁하는 아이들에게 12월 25일에 새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키국 민족에게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새해를 celebrate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음식과 게임과 춤으로 흥겨운 파티가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영어, 한국어, 산수 수업이 진행되고, 매번 간식이 제공됩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수업 마치자마자 소눈 에제(아내)를 따라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꼬맹이들이 어미 오리를 따라가는 새끼오리 같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이들의 얼굴은 더 밝아졌고, 웃음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집에는 교회 청년들 리트릿 (올나이트?)가 한창입니다. 어제부터 집 청소와 음식준비로 우리부부는 분주했고, 아직도 아내는 부엌에서 밤새 먹을 음식을 청년들과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을 맞도록 이야기 꽃을 피울 청년들이 주께서 항상 머무시는 우리 집에서 그를 알아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삼남매 엄마 이야기 (56)

울겨울은 여느해보다 따뜻한가 싶으면 여지없이 강추위가 몰려옵니다. 우리가 지내는 집은 언제나처럼 영하 5도까지만 지낼만하기 때문에, 영하 10-15도가 되면 그냥 그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교실이나 집이나 난방에 대한 좋은 방법이 생기면 좋겠는데 돈 안들고 따뜻한 방법은 없어서 생각을 멈추고 이 시간들이 잘 지나길 바랍니다. 동네 전기수급이 좀 더 넉넉하고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되길 바랄 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약속했던 아이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지난 겨울방학동안 시골로 이사간 줄 알았던 누르무하메드도 돌아오고, 알리한, 이스각도 다시 공부하러 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반은 4학년밖에 되지 않아 학부모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바쁘거나 관심이 없어서 안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없이 와서 자기도 이 반에서 공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 ‘엄마의 무관심 속에 아이는 얼마나 궁금해서 여기왔을까’ 싶어서 들어줍니다. 그런 후에 우리 반에 더이상 자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꼭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해 줄 수 있는게 없어서 저한테까지 부탁하는 엄마는 오죽 할까’ 싶어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있는 의자 수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아이들이 번갈아가면서 아픈 바람에 의자가 모자란 경우는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5학년이상 큰학생들만 식당에서 빵을 먹었는데, 새해부터는 우리반 아이들도 쉬는 시간에 식당에서 간식 먹는 시간을 가집니다. 영어, 수학, 간식 시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당연 간식 시간입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 영어공부 시간을 참고, 빵을 먹었기 때문에 일찍 집에 가겠다고 말못하고 수학을 다 풀어야 됩니다. 이 곳에 있는 덕분에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면서 느끼는 흐뭇한 기쁨을 우리 삼남매가 떠난 지금까지 계속 누릴 수 있네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나서야 ‘지출이 느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 지출은 이 아이들이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한대로 된 거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게 아이들이 센터에서 지냈던 걸 생각하면, 올해는 또 어떻게 이 센터가 훌러가게 될지 기대됩니다. 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는 잘 지냅니다.





기도해주세요

1. 26년에도 진행될 학부모 세미나를 통해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2.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기를
3. 오랜만에 만난 마타이와, 가족이 되어가는 벡뚜르, 두 아이가 우리와 더 친밀함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길
4. 파트너쉽을 맺은 카느벡 모님 (부부)의 가정교회가 척박한 이땅에서 강건하게 서도록
5. 하람 주영 택함이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후원안내

<미주>

gpusa.org/give 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Selected Missionary 는 K14 평안 회복 입니다. 메모에 윤재웅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Check를 GP회사로 보낼 경우

Pay to : (GP USA) 그리고 Memo 란에 (K14, 윤재웅, 현순)

GP회사주소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한국>

KEB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990-090820-517 (예금주 : 윤재웅)